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印刷人 方又榮
主幹 宋赫
編輯部長 金澤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2
本社直通 ☎8577

每週火曜日發行

技와 힘 調和로 東國氣象 높여

제3회 단장기 쟁탈 護國體典 閉幕

綜合優勝에 師範大차지

2位 經商大, 응원상 여학생大隊

知性과 젊음으로 가을 하늘을 수놓은 第3回 國長旗 쟁탈 護國體典이 25日 오후 5시30분 전경기를 마치고 師範大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大運動場을 함성과 젊음의열기로 진동시킨 이날 護國體典은 2千여명의 學生과 선수입장과 국민의례, 개회사, 격려사순으로 진행된 이날 개회식에서 李瑄根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젊음과 낭만의 祭典인 호국체전에 임해 전선수와 학생은 선전분투, 비약하는 동국의 기상을 드높혀 달라」고 당부했다.

金一亨師範長은 開會辭에서 『東西의 정기를 이어받은 5천東國人의 의지가 이 드높은 하늘 아래 높이높이 메아리치게 하자』고말했다.

작년도 우승팀인 敎職學部팀을 대신한 李尙洙(電氣3) 부사단장으로부터 우승기 반환이 있은 후 1백30여명의 선수를 대표한 배연덕(演映2)君의 선수대표선서와 함께 東大附高 農研의 농악에 맞춰 여학생대대에서 준비한 오색풍선이 대운동장 하늘을 수놓았다.

게임에 앞서 10시30분부터는 2백여 여학생들이 펼친 자유롭고 발랄한 마스게임과 ROTC의 도수체조및 태권도시범이 펼쳐져 약동국의 모습을 과시했다.

이어 젊드에서는 11시부터 처정기로 農林大와 經商大의 배구결승이 열렸는데 이경기에서는 위려있는 스파이크로 팽팽을 펼친 농대가 일진일퇴의 대공방전에 임해 결국 15:12로 승기를 잡아 결승진출을 이룩했다.

敎職員, 同門등 校內外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開幕式, 열전을 벌인결과 師範大에 이어 經商大가 優勝을 차지했고 응원상은 여학생대대에게 돌아갔다.

◇第3回 호국체전에서 綜合優勝을 차지한 師範大學에 優勝旗를 수여하고있는장면 (上) 과 여학생100m결승광경 (下).

護國團 野營大會

29、30兩日間 江華島서

제3회 學徒護國團 野營大會가 오는 29, 30일 양일간에 걸쳐 江華島 傳燈寺에서 열린다. 學徒護國團 간부의 자질향상과 리더쉽 함양을 위해 열리는 이야영대회에는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전원 1백2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이자리에서는 李瑄根총장의 特講과 鄭允武學生處長의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그밖에 이번 야영대회는 11월중에 있을 일반학생敎練검열에 대비한 중대장급 이상 간부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인 훈련이 실시된다.

敎育問題 심포지움

師大主催 5日 敎養學館 세미나室서

제8회

개교71주년기념제8회 「敎育問題심포지움」가 師範大(學長=南都祐博士)주최로 「人間化를 위한 學校敎育의 課題」란 주제로하여 오는 11월5일2시부터 교양학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3部로 나누어서 太校 金乘正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서 洪雄善(延大)교수등 3명이 주제발표를 하게되며 또한 高泰欽(京畿高校교사)씨등 15명이 討論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학교교육의 방법론제와 敎人間化敎育의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한편 심포지움이 끝나면 4시부터 학생회관6층에서 小宴이 베풀어질 예정이다.

◇주제발표자및 내용

▲洪雄善(연대문과교수)=제1주제 「學校內的 要因」 ▲韓明希(本校사대)=제2주제 「學校外的 要因」 ▲康吉秀(서울사대)=제3주제 「敎育政策的 課題」

◇토론참가자

▲高泰欽(京畿고교) ▲金寬性(東大附中교장) ▲金淑姬(京畿여고) ▲金龍浩(부산海東고교장) ▲金貞卿(이화여고) ▲音昌坤(大韓敎聯) ▲朴來風(숭앙교육연구원) ▲朴先榮(보교교수) ▲無盡藏(송교교) ▲李遠譜(휘문고교) ▲李庸賢(서울교육연구원) ▲李禹出(대구能仁고교장) ▲李在福(大田普文고교장) ▲鄭斗鎬(UNESCO)

<이상 가나다順>

正覺院特講

大乘起信論敎材로

正覺院(院長=李智冠박사)에서는 교직원, 학생및 일반신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금요일 일반법회와는 別個로 지난 21일부터 매주金요일 오후 4시에 大乘起信論을 교재로 하여 李院長이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매주 수요일 외교관 부인을 대상으로 하면 수요법회에서는 고등행정관 부인을 포함, 그 대상을 확대하여 檀奇悰교수를 法師로 佛敎敎理 講座를 실시하고 있다.

自然保護運動

南山一帶에 팻말 부착

UNSA등서

「自然保護」운동계몽을 위한 팻말 부착이 學徒護國團 새마을部 UNSA(會長=趙起洪·政外2)를 中心으로 22일(土) 오전 11時부터 오후 5時까지 南山일원에서 있었다.

沉國昊的인 自然保護운동에 반발주어 황폐해 가는 自然環境의 淨化와 保存을 위해 實施된 이 運動에는 UNSA會員 30名과 敎職員 20名등 總 50名이 써클답게 鋪錫(學生指導課)·성셔의 인솔로 장충단공원, 남산 순환도로, 팔각정에 이르는 남산공원 全산책로 주변의 철책에 그동안 UNSA會員들이만들은 1千2百여個의 「자연보호」팻말을 부착했다.

◇새마을部UNSA에서 남산일원에 팻말부착을 하고 있다.

英語硏究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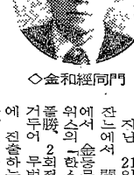
매일英語배부

본교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실력향상을 위하여 호국단 문예부 영어연구회에서는 「매일영어」를 지난 17日(月)부터 매일 오후6時주에 교수회관1층수위실에서 배부하고있다.

이 「매일영어」는 10여개의 Idiom과 예문을 수록한 프린트물로서 낮과후 자학자습을 하는데 유용한학습자료가 되고 있다.

世界레슬링대회

金和經同門 銅메달



◇金和經同門

世界 自由型 레슬링 選手權大會에 韓國페이급級 48㎏(이하) 代表로 出戰한 金和經(73·부여郡)동문이 銅메달을獲得, 韓國選手중 唯一한 메달獲得자이다.

지난 21일부터 스위스로 잔느에서 開幕된 이번大會에서 金동문은 1회전에스위스의 「한스·뢰트제르」에 폴승, 2회전에서 기권승을 거두어 3회전에 진출하는 好調를 보였다. 그러나 3회전에서 日本의 「후지사와」에게 判定敗, 3월점의 부담을 안고 이번 敗復전에 올라 루마니아의 「다소린」에게 판정승을 거두었다. 5회전에 진출한 金동문은 「아노토리·메들라조프」와 격돌하여 근소한 차로 判定敗함으로써 아깝게 銅메달에 머물렀다.

護國團 定期檢閱

오는 11日, 2、3學年 대상

77학년도 學徒護國團(사단장=김일청·印哲3) 定期검열및 實技鍛延行事가 오는 11월11일 대운동장에서 실시되는 평가, 군사교육 실시 성과의 측정및 評價, 戰時대응능력 강화, 건전한 학원풍토조성 및 護國學徒像의 정립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검열은 中央學徒護國團 간부 임원하에 수검하고 官技鍛延大會는 학교자체 통제하에 실시된다.

학년별 검열및 실기경진행사는 3학년은 전반적인 검열, 2학년은 집체합훈련 포함), 2학년은 (시범훈련 포함), 1, 4학년은 검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검열을 위해 각大學長 책임하에 指導敎授및해 교직원이 참가 검열에 임하게 되며 또한 이번 檢閱및 실기경진大會에서 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대대에 대해서는 검열대응을 살펴보면2, 3학년 전열의 열병및 분열에 이어 3학년의 大學別 지정종목의 시범훈련이 있다.

大學別 지정종목은 다음과 같다.

▲제1훈련(姜敏大) ▲총검술(文理大) ▲M1(師範大) ▲총검술(經商大) ▲M16(佛敎大) ▲수류탄투(工大) ▲수류탄(여학생제반) ▲각개전투(工大) ▲수류탄(여학생제반)

黃哲淳 金메달 獲得

아시아 복싱선수권大會

第8回 아시아복싱선수권大會 본교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黃哲淳(警行2)군은 19일 열린 밴텀급결승전에서 이란의 바바베션수를 물리치고 金메달을 획득했다.

대회의 參加資格은 「나셀·알리·바바베」를 맞파이팅으로 공략한 결과 아시아지역 敎職員이며 학생선수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오는 28일까지 동창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동창회 사무국(☎8568)로 문의바람.

東國敎養4輯

26日까지原稿募集

敎養學部(部長=李丙隣박사)에서 발간하는 「東國敎養」第4輯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敎養學部生들의 「東國敎養」은 「東國敎養學會」의 原稿모집부문은 論文, 詩, 隨筆, 紀行, 小說등이며, 게재채택하면 소정의 稿料를 지급한다.

同窓會長盃 테니스대회

30日, 敎職員 코트에서

本校동창會 회주최 제3회 「同窓會長 盃」 테니스대회가 오는 30일(日) 오전 9시부터 本校敎職員 테니스코트에서 열린다.

東國人의 기상을 높이고 동문상호간의 우의를 증진하기위해열리는 이번 대회의 參加資格은 東國대학교 敎職員및 卒業生, 本校사대 등록선수로 구성된 팀이며 1회전 경기는 예선리그전으로 하고 2회전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 결승전에서는 3세트 경기로 승자를 가리게 된다.

二友誌 創刊號

詩등作品原稿募集

本校에 在學중인 2학년대생의 (會長=甲泰徹·공경2)인 二友會(國語國文學會)에서는 「二友誌」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二友誌는 2학년 2部大生들의 創作意慾을 고취하기 위해 계획, 오는 11월26일 창간호 發刊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二友誌」의 원고모집 부분은 詩, 小說, 隨筆, 評論, 論文, 讀後感등이며 작품접수는 2部大 敎學課나 二友會 會員에게 오는 11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敎授動靜

◇主任敎授(3名)

▲英文科=朴珍鎬敎授 ▲化學科=閔泰鎭敎授(서리) ▲營行科=徐敏根敎授(서리) ▲補職(1名) ▲李鍾傑專任講師=學生指導硏究所 ▲李瑄根總長=「韓日古代佛敎交涉史」에 관한 공동연구차 내일 日本九州大田村園藝고교, 東京大, 鐵出고교 방문, 일행은 초청, 지난18일 엽배서 귀교, 21일 개최.

▲南都泳(前大學長)博士=지난22일(土) KUSA會館(경기도 이천소재)에서 열린 「KUSA간부수련대회에 이란 연제로 강연.

大學人事

行政大學院(院長=田國柱博士)의 77년度 新入生 자격시험이 지난16일 오후5시陸軍會館에서 있었다. 이날 자격시험에는 敎授, 學生등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行院 新入生 自祝會

16日, 陸軍會館에서

직원팀이 세트스코어 2대1로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묘기백출로 만장의 폭소를 자아낸 미니축구에서는 가정과팀을 주축으로 한 A팀이, 미술과팀을 주축으로 한 B팀에게 최선의 승리를 거둬 1대0으로 승리했다.

이날 體典의 하일라이트인 야구에서는 師範大와 經商大가 격돌, 師範大의 김광천(體敎·4) 선수의 호투호타에 힘입어 경상대를 6대0 5회 콜드게임으로 격파, 우승을 거두면서 총 4승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서 열린 3전째 경주에서는 김일동(소가·1)군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1선대가 승리한데 이어 마전을 끝으로 모든경기를마치고閉會式과成績敎表가 있었다. 총합우승은 師範大(4벌점)경제, 준우승에는 經商大(3벌점)경제, 3위는 東國山岳의 순이었다.

이날 山岳祭는 三師依 대신 임은 축사에서 『成年 민이라고하여 화합된 상태라고 말할수 있을까. 돌과 기름은 같은 그릇에 담겨 있어도 섞이지 않고 따로 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과 우유처럼 같이 섞여야(水乳相參)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렇다면, 화합은 어떻게 하여야 이루어 지는가. 總社의 方案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和合해서 和合이 아니다. 같을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은 見解를 갖고, 같은 조건(戒品)에서 같은일을 하여야 하며, 慈悲로운마음과 자비로운 말을 할 때에 자비로운 행동과 자비로운 마음이 되는다」(四分律四十三)

그러므로 總和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은 모든사람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총화는 존경에서 온다는것이 아닌가야 한다. 온다는것은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존경하는 마음은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존경하는 마음은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사람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慈悲로운 행동과 자비로운 말을 할 때에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擢奇悰>

今週一言

施勞於人,
而欲望祐,
殃咎歸身,
自遭廣怨.

남에게 수고와피로움을 끼쳐 거기서 내 공을 얻으려 하면, 그 재앙은 내게로 돌아와 원망과 미움은 끝이 없을 것이다.

<法句經>

수리(보리)

그럼, 단결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고 에서 단결하자고 외친 다음에 단결되는가. 아니면 거리거리에 포스타를 내걸고, 표어를 붙이면 단결되는가. 아니다 단결은 서로 잘이 살고 있는 국민이라고하여 화합된 상 태라고 말할수 있을까. 장관계, 그 어디에서도 서로서로의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는 총화가 일하는 동료, 한 나라에 있는 국민이라고하여 화합된 상 태라고 말할수 있을까. 장관계, 그 어디에서도 서로서로의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는 총화가 되는 것이다.

◇ 和 敬 ◇

이 산다고 해서 화합된 상태라고 말할수 없다. 한 사람이 욕하는 말을 쓰게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때 和合은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러하며 서로서로 존경하지 않는 가정에서 살고있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때 和合은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러하며 서로서로 존경하지 않는 가정에서 살고있는 것이다.

◇ 敬 和 ◇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때 和合은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러하며 서로서로 존경하지 않는 가정에서 살고있는 것이다.

滿天下讀者에 告함

過去를 謝하고 將來를 囑함

士博三라마D 長師敎

韓一柳 長社

吾人이 屢次紙上으로써 社會諸賢에게 公約하여온바와가티 弊社가 일즉부터 우리民衆의 福利增進을爲한 一公器로서 微力이나마 孜孜不倦의 努力을 傾注하여온것은 諸賢께서도 이미認定하신줄 生覺합니다.

一國家 一社會의 發達은 勿論政治, 經濟, 文化等各方面의 이에 對한 努力을 必要로하려니와 就中 弊社社長 柳一韓氏가 民衆保健이라는 巨大한 目標를 세우고 抬有餘星霜의 長久한 時日을두고 不斷한 努力을 傾注하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健康體 即 民衆의 血管속에 우렁차게 도라가는 血液, 機敏하게 作用하는 神經과 各器官, 鐵腕 鐵足, 이에 넘처흐르는 生命力을 가진 然後에야 비로소 遠大한 抱負와 偉大한 經倫을 實踐達成할수 있음을 信한까닭이었습니다.

아. 民衆保健運動을 實行함에 있어서 吾人은 二個의 方途를 生覺할수 있으니 其一은 醫療機關의 發達이오 其二는 衛生思想의 普及입니다. 이에 弊社는 世界各國으로부터 特殊한 優秀藥品을 輸入하야 在庫을 豊富히하고 언제나 至東洋一圓 醫療界에 供給을 圓滑히하야써 斯界의 發達을 促進하는 同時에 各種刊行物을 出版하는 一方 紙上病院과 廣告等으로 一般의 衛生思想普及에 致力하는것으로써 먼저 그 第一步를 내드딘것입니다.

同時에 吾人은 明日의 産業東洋을 建設키爲하야 製藥實驗硏究所와 工場을 設置하고 中歐로부터 技師長을 招聘하야 原料에 對한 精密한 調査와 藥品에 對한 綿密한 硏究를 거듭하고 吾人의 遠大한 理想을 實現키로 萬端의 準備를 進行하고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國內産業의 發展은 自足自給으로부터 一步 進하야 海外貿易을 前提로 하지아느면 아니되므로 弊社는 本社를 京城에 두고 大連, 上海, 台北, 大阪等地에 旣設된 支店, 出張所外에 今般 天津과 米國 羅府에도 支店을 新設하고 海外進出을 企圖하야 今後 奮心盡力할것을 또다시 社會諸賢에게 公約 하는바입니다.

그러므로 吾人의 理想을爲한 本格的努力은 오히려 今後에 있다고 할수 있을것이니 過去에 있어서 醫療界諸先生는 또 社會諸賢으로부터 懇篤한 指導와 鞭撻에 依하야 우리 社會의 一公器로 今日의 柳韓洋行이 있게 됨과 가티 今後에 있어서도 一層倍舊의 愛護로써 吾人이 公約한바 叙上의 目的遂行에 假借없는 鞭撻이 있기를 바라는바입니다.

柳韓은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자라고 있읍니다.

원편광고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일제압정하에 있었던 당시 柳韓이 각 일간신문을 통해 낸 전면광고 중 일부입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柳韓은 50여년을 한결같이 실천해 온 기업정신을 되새기며 여러분과 함께 柳韓이 개척해야 할 내일을 생각하고저 합니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公器로서, 국민의 건강체 실현으로 원대한 포부와 경륜을 달성 실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수의약품 생산 보급과 위생사상의 보급,
그리고 민족자본 육성과 산업발달을 위한 해외무역을 선두에서 실천해 온 柳韓洋行은 오늘도 발전하는 국가경제에 발맞추어 면면히 흘러온 柳韓의 企業理念을 具現하기위해 우수의약품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충실히 사회에 되돌리어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株式會社 柳韓洋行

社說

自然保護와 大學

요즘 自然環境에 대한 保護運動이 각처에서 展開되고있는것 같다。本校만 하더라도 지난 22日에 一部學生들이 自然保護啓蒙의 팻말을 만들어 南山公園의 散策路邊 鐵柵에 부착하였을뿐만아니라 그곳을 대청소까지 하였다고 한다。이처럼 最近에 갑자기 自然環境保護運動을 汎國民的으로 벌이게 된 것은 去歲에 대통령의 그에 관한 指示에 의한것임은 새삼스럽게 들을나위도 없다。

그동안 이나라 産業, 특히 工業이 急速度로 발달하였고 그때문에 우리江山의 옛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되었음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空氣라는것도 심하게 오염되어가고있는 實情이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그간 소득이 향상된 탓으로 옛날보다는 여가를 다양하게 즐기게되었고 그에 따라 山野나 고적지, 유원지등으로 관광하는 일이 많아졌다。이는 사실 반가운 일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로인하여 자연이 척지않게 훼손되어가고있다는 事實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山에 올라가서 左右를 살핀다면 나무나 바위등에 글자가 새겨져있음을 때때로 목격할수 있다。그런가하면 계곡에는 쓰레기나 종이 버려져있음을 볼수있다。또 公園이나 그밖의 유원지등을 가보면 자연을보호상 들어가지말라는 팻말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그곳에 들어가 사진을찍고있는가하면 술을 마시고 飮食을 먹는 事例를 우리는 종종 볼수있다。

이런 몇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自然環境에 대한 保護運動은 사실 진즉부터 시작되었어야할 일이었던 것이다。

한편 國際社會를 바라본다면 앞선 工業化의 나라들은, 수년전부터 自然保護에 관한 法을 만들고, 또한 環境廳 같은 部署를 창설하여 保護하여야할 特定地域에 營利施設을 不許하고 있음은 두말할것도없고 수렵을 비롯하여 自動車進入, 土石採取및 家畜放牧등을 禁함으로써 自然環境의 保護에 萬全을 기하고 있는 形便이다。이런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自然保護運動은 여간 뒤떨어진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어떤西洋의 哲學者는 自然을 人間生活에서 은혜이라 할수있는 말한 바 있다。그만큼 自然을 크게 問題삼아야함을 强調하였다는 뜻으로 理解할수 있다。

왜냐하면 自然은 人間의 健康을 增進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때문이다。都市의 탁한 空氣속에서 週日 일을 하다가 日曜日이나 公休日같은 날에 登山을하면 잘할수 있듯이을 창한 森林밑에서는 우선 공기의신선함을 맛볼수 있다。다시 山林이란 自然을 무엇보다 먼저 公園에 견지고 있는 人間에게 낡은 空氣를 供給함으로써 健康을 돕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自然은 人間에게 安定感을 갖게하여 주기때문이다。현지의 티도 찾아볼수 없는 아름다운 바라본다면 자기도 모르게 착잡했던 마음이 가라앉음을 느낄수있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創意力을 생기게 하주는수가 있다。따라서 自然은 人間에게 어떤 活力素를 불어넣어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밖에도 自然은 民族愛를 강화시켜주기때문이다。어떤나라를 不問하고 그나라 국민이 그나라의 江山을 사랑할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이와같이 한개 나라의 自然을 아끼며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 民族愛가 한층 굳어질것은 뻔하며, 이는 결국 愛國心의 鼓吹를 結果케 한다 할것이다。

이러니만큼 自然環境의 保護運動은 한때의 일보 그칠것이 아니라 永久히 지속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 아니어서는 안된다。그리자면 그에게 있어서는 가치로운 것은 超自然的 神이 아니라 자연속에서 現實을 실현할수 있는 태도와 경험이다。이러한태도와 경험을 그는 「宗敎的인 것」으로 보고, 이 종교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知性的 경험을 허용하는 개방적이고 公共的인 인류공동의 (어느 特定宗派의 專有物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듀우이가 제창하는 「共同信仰(a common faith)」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것」을 말한다。이 공동의 신앙은 과학적 「世界觀과 민주주의의 생활원리에 일치한다는 人道主義의 종교라고 그는 주장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은 듀우이의 종교관은 그가 학교에서의 他敎科 사이에는 학습과정의 표준에 不一致와 모순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모순을 內在的인것이 아니라고 한다。얼핏가는 宗敎도 인간의 정신과 心意속에 이식되는 敎育은 종교적이라는 形容詞에 의해 지시될 수 있는 경험의 質 사이에는 差가 있다는 것이다。그에 의하면 「종교」는 제도화된종교와 가진 특정한 信念과 심천의 體系를 말하고 「종교적」은 여러가지 종교적 경험을 통가 시켜줄 수 있고 활력있게 하는 根本的 경험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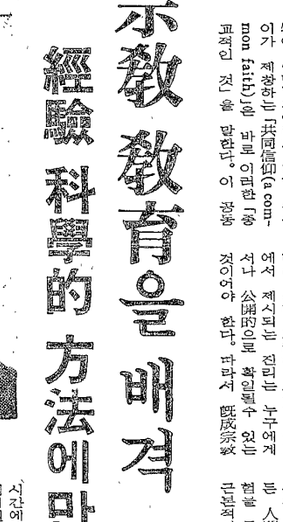
그에 의하면 「종교적」은 「共同信仰」으로 인하여 다음에서 現出된다。

1. 敎育의 목적은 종교적 인간의 육성에 있다。
2. 敎育사상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이들은 韓國敎育學會 第25回年次大會에서 연구발표할 내용의 要旨이다。

존 듀우이의 宗敎敎育觀

「宗敎的動物」로서 人間省察 못해



◇존·듀우이

朴先榮 〈敎育學科·專任講師〉

特定宗敎 敎育을 배격
經驗 科學的 方法에만 의존

I

오늘날 韓國敎育學에 있어서 존·듀우이(John Dewey)의 敎育思想에 대한 學問的 課題는 愛憎의 문제라기보다는 克服의 문제일 것이다。

현대교육사상을 말할 때 듀우이가 차지하는 자리와 비중은 넓고 크다。우리나라에 있어서도 8·15해방이후 敎育界 내지 敎育學界에 끼친 듀우이사상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그러나 듀우이思想을 그것이 자라 꽃피운 美國에서조차도 이미 많은 논란을 거듭하면서 극복되어가고 있다。사회적 여건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韓國에 옮겨질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미와 갈등을 빚어낼 것이다。

현대교육사상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이글은 筆者가 오는 10월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韓國敎育學會 第25回年次大會에서 연구발표할 내용의 要旨이다。

◇ 인간은 知性的, 藝術的, 動物的, 道德的일 뿐아니라 宗敎的 動物이기도 하다。그럼으로 人間敎育의 본질에는 종교적 次元이 存在한다。이에 대해 다음에서 現代敎育思想家 (존·듀우이(John·Dewey)) 의 宗敎敎育思想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이글은 筆者가 오는 10월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韓國敎育學會 第25回年次大會에서 연구발표할 내용의 要旨이다。

II

듀우이의 사상적 基盤은 프라그마티즘(Pragmatism) 이다。프라그마티즘은 일종의 방법철학으로서, 變化의 철저관과 도구적 지식관및 相對的 가치관을 그 基底로하고 있다。이러한 경험과 학적 世界觀을 소위 民主主義의 생활원리로 통합시킨 것이 듀우이사상의 핵심이다。따라서 그의 교육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經驗科學的 世界觀에 뿌리를 둔 民主生活의 學習으로 압축된다。이러한 그의 입장은 자연 어떠한 權威主義나 전통적 방법및 초자연적 종교를 배격한다。

그는 「宗敎(religion)」와 「宗敎的(religious)」을 엄격히 구별하려 한다。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賛名詞에 의해 의미될 수있는 것과 종교적이라는 形容詞에 의해 지시되어질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神도 단지 想像(imagination)의 理想化에 불과하다고본다。그럼으로 전통적으로 西歐에서 신앙되어온 絶對神의 존재는 부정된다。그러나 그 想像을 통하여 理想化된 諸理念과 實際의 행동이 통일되어질때, 인간의 경험은 보다 풍부해지고, 진보하게 된다고 한다。理想化된理念으로서의 神이나 神性의 관념은 분산되어 있는 흥미와 힘을 통합하여 행동을 지도하고 뜨거운 정열과 밝은 지성을 자아낼 수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고 귀중한 것이라 한다。여기서 우리는 神을 道具主義의 實驗主義의 입장에서 기능적으로 파악한 그의 神觀을 확인하게 된다。

◇존·듀우이

신앙은 과학적 「世界觀과 민주주의의 생활원리에 일치한다는 人道主義의 종교라고 그는 주장한다。

III

앞서 말한바와 같은 듀우이의 敎育學科·學敎科 사이에는 학습과정의 표준에 不一致와 모순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모순을 內在的인것이 아니라고 한다。얼핏가는 宗敎도 인간의 정신과 心意속에 이식되는 敎育은 종교적이라는 形容詞에 의해 지시될 수 있는 경험의 質 사이에는 差가 있다는 것이다。그에 의하면 「종교」는 제도화된종교와 가진 특정한 信念과 심천의 體系를 말하고 「종교적」은 여러가지 종교적 경험을 통가 시켜줄 수 있고 활력있게 하는 根本的 경험을 지칭한다。

그에 있어서는 가치로운 것은 超自然的 神이 아니라 자연속에서 現實을 실현할수 있는 태도와 경험이다。이러한태도와 경험을 그는 「宗敎的인 것」으로 보고, 이 종교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知性的 경험을 허용하는 개방적이고 公共的인 인류공동의 (어느 特定宗派의 專有物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듀우이가 제창하는 「共同信仰(a common faith)」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것」을 말한다。이 공동의 신앙은 과학적 「世界觀과 민주주의의 생활원리에 일치한다는 人道主義의 종교라고 그는 주장한다。

앞서 확인된 듀우이의 종교관은 그가 학교에서의 他敎科 사이에는 학습과정의 표준에 不一致와 모순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모순을 內在的인것이 아니라고 한다。얼핏가는 宗敎도 인간의 정신과 心意속에 이식되는 敎育은 종교적이라는 形容詞에 의해 지시될 수 있는 경험의 質 사이에는 差가 있다는 것이다。그에 의하면 「종교」는 제도화된종교와 가진 특정한 信念과 심천의 體系를 말하고 「종교적」은 여러가지 종교적 경험을 통가 시켜줄 수 있고 활력있게 하는 根本的 경험을 지칭한다。

그에 있어서는 가치로운 것은 超自然的 神이 아니라 자연속에서 現實을 실현할수 있는 태도와 경험이다。이러한태도와 경험을 그는 「宗敎的인 것」으로 보고, 이 종교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知性的 경험을 허용하는 개방적이고 公共的인 인류공동의 (어느 特定宗派의 專有物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듀우이가 제창하는 「共同信仰(a common faith)」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것」을 말한다。이 공동의 신앙은 과학적 「世界觀과 민주주의의 생활원리에 일치한다는 人道主義의 종교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종교」는 「종교적」은

學問의 世界

貿易學

錢 昌 源
<經商大學長·經博>

理論과 實務 종합연구 필요
새로운 時代의 學問, 時代感覺 요구

<15>

商學의 종합연구로 나누어 진다.

經濟學的 연구는 국제간에 성립되는 諸流通關係의 發生原理, 그것이 각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論究하는 國際貿易理論이다. 敵策學的 연구는 각국이 유치산업 및 영향을 연구하는 「國際貿易政策」이다. 이것은 Ricardo로 대표되는 古典學派나 新古典學派의 生産費學說이나 현대의 마르크시즘(Marxist) 케인지안(Keynsian)의 近代貿易理論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經濟學徒의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두번째의 政策論的 研究는 각 나라가 현재 채택하고 있고 또 앞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대외의 貿易面의 국가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貿易政策論」이다. 지금도 각국 무역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關稅制度 특히 輸入許可制度 등을 중심으로 결론생활을 분석해 보려면 商學的 연구는 국내외의 貿易學界의 動向과 貿易學이 독자적 理論과 새로운 實務 종합연구 요구

經濟學的 연구는 국제간에 성립되는 諸流通關係의 發生原理, 그것이 각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論究하는 國際貿易理論이다. 敵策學的 연구는 각국이 유치산업 및 영향을 연구하는 「國際貿易政策」이다. 이것은 Ricardo로 대표되는 古典學派나 新古典學派의 生産費學說이나 현대의 마르크시즘(Marxist) 케인지안(Keynsian)의 近代貿易理論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經濟學徒의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두번째의 政策論的 研究는 각 나라가 현재 채택하고 있고 또 앞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대외의 貿易面의 국가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貿易政策論」이다. 지금도 각국 무역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關稅制度 특히 輸入許可制度 등을 중심으로 결론생활을 분석해 보려면 商學的 연구는 국내외의 貿易學界의 動向과 貿易學이 독자적 習을 연구하는 國際貿易論이다. 마라서 무역의 전문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經濟學, 經營學, 商學, 法律學에 기초를 두고, 國際經濟, 國民經濟, 個別經濟의 넓은 범위에 걸쳐 이론과 실무를 종합한 무역연구가 요구된다. 현대의 무역연구는 國際貿易理論, 貿易政策論, 貿易經營論 國際貿易實務論 등으로 나누어서 행해지고 있다.

첫번째의 경제학적 연구는 國家와 國家 사이에 행하여지는 物資交易의 근본원리, 특히 한 國際間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유통관계의 動因이나 그것이 각각 國民經濟에 미치는 이해 및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무역의 전문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國際貿易理論이다.

商社行政에 관한 法學的, 商學的 연구가 필요하고 동시에 輸出및 輸入에 대한 貿易實務 연구가 필요하다. 貿易理論이나 무역정책의 연구에서도 무역실무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卓上空論에 흐르기 쉽다.

마라서 무역의 전면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經濟學, 商學, 法律學에 기초를 두고 國際經濟, 國民經濟, 個別經濟의 廣범한 범위에 걸쳐 理論과 실무를 종합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輸出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要求되며, 卒業後 貿易상사에 入社, 貿易實務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역英語 특히 무역話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오늘날 무역학은 세계의 先驅的 學問으로서 시대적 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로운 시대의 다물수 없는 무역특유의 문제를 많이 갖고있다. 무역경영은 아직도 經營學界의 처녀지로 남아져 있다. 法學, 商學的 研究는 세번째의 法學, 商學的 研究는 무역실적을 판단하는 인정되고있는 부역실적을 연구하는 「國際貿易論」인데, 이것은 契約法理와 商社行政과의 종합연구를 필요로하고 있어 法學과 商學과의 中間領域에 놓여져 있기때문에 미수상태로 남겨져 있다.

國際貿易의 연구에서는 법학과 상학과의 영역에 있어서는 종합해야 하는데 國際法通의 法制가 미흡하고 국내적으로는 外國貿易에 관한 특별한 법제나 規定이 없기 때문에 그 연구가 어렵다. 貿易學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경영학이나 무역개발에 있어서 무역실무에 있어서 수출및 수입활동의 商務研究가 필요하다. 이러한 輸出및 輸入活動의 商務를 研究對象으로하는 것이 「貿易實務」이다.

이와 같이 現代의 貿易研究는 國際貿易理論, 貿易政策論, 貿易經營論, 國際貿易實務論의 종합연구가 필요하고 동시에 무역의 전문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經濟學, 經營學, 商學, 法律學에 기초를 두고, 國際經濟, 國民經濟, 個別經濟의 넓은 범위에 걸쳐 이론과 실무를 종합한 무역연구가 요구된다. 현대의 무역연구는 國際貿易理論, 貿易政策論, 貿易經營論 國際貿易實務論 등으로 나누어서 행해지고 있다.

첫번째의 경제학적 연구는 國家와 國家 사이에 행하여지는 物資交易의 근본원리, 특히 한 國際間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유통관계의 動因이나 그것이 각각 國民經濟에 미치는 이해 및 영향을 연구하는 國際貿易理論이다. 마라서 무역의 전문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經濟學, 經營學, 商學, 法律學에 기초를 두고, 國際經濟, 國民經濟, 個別經濟의 넓은 범위에 걸쳐 이론과 실무를 종합한 무역연구가 요구된다. 현대의 무역연구는 國際貿易理論, 貿易政策論, 貿易經營論 國際貿易實務論 등으로 나누어서 행해지고 있다.

첫번째의 경제학적 연구는 國家와 國家 사이에 행하여지는 物資交易의 근본원리, 특히 한 國際間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유통관계의 動因이나 그것이 각각 國民經濟에 미치는 이해 및 영향을 연구하는 國際貿易理論이다. 마라서 무역의 전문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經濟學, 經營學, 商學, 法律學에 기초를 두고, 國際經濟, 國民經濟, 個別經濟의 넓은 범위에 걸쳐 이론과 실무를 종합한 무역연구가 요구된다. 현대의 무역연구는 國際貿易理論, 貿易政策論, 貿易經營論 國際貿易實務論 등으로 나누어서 행해지고 있다.

첫번째의 경제학적 연구는 國家와 國家 사이에 행하여지는 物資交易의 근본원리, 특히 한 國際間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유통관계의 動因이나 그것이 각각 國民經濟에 미치는 이해 및 영향을 연구하는 國際貿易理論이다. 마라서 무역의 전문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經濟學, 經營學, 商學, 法律學에 기초를 두고, 國際經濟, 國民經濟, 個別經濟의 넓은 범위에 걸쳐 이론과 실무를 종합한 무역연구가 요구된다. 현대의 무역연구는 國際貿易理論, 貿易政策論, 貿易經營論 國際貿易實務論 등으로 나누어서 행해지고 있다.

첫번째의 경제학적 연구는 國家와 國家 사이에 행하여지는 物資交易의 근본원리, 특히 한 國際間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유통관계의 動因이나 그것이 각각 國民經濟에 미치는 이해 및 영향을 연구하는 國際貿易理論이다. 마라서 무역의 전문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經濟學, 經營學, 商學, 法律學에 기초를 두고, 國際經濟, 國民經濟, 個別經濟의 넓은 범위에 걸쳐 이론과 실무를 종합한 무역연구가 요구된다. 현대의 무역연구는 國際貿易理論, 貿易政策論, 貿易經營論 國際貿易實務論 등으로 나누어서 행해지고 있다.

첫번째의 경제학적 연구는 國家와 國家 사이에 행하여지는 物資交易의 근본원리, 특히 한 國際間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유통관계의 動因이나 그것이 각각 國民經濟에 미치는 이해 및 영향을 연구하는 國際貿易理論이다. 마라서 무역의 전문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經濟學, 經營學, 商學, 法律學에 기초를 두고, 國際經濟, 國民經濟, 個別經濟의 넓은 범위에 걸쳐 이론과 실무를 종합한 무역연구가 요구된다. 현대의 무역연구는 國際貿易理論, 貿易政策論, 貿易經營論 國際貿易實務論 등으로 나누어서 행해지고 있다.

첫번째의 경제학적 연구는 國家와 國家 사이에 행하여지는 物資交易의 근본원리, 특히 한 國際間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유통관계의 動因이나 그것이 각각 國民經濟에 미치는 이해 및 영향을 연구하는 國際貿易理論이다. 마라서 무역의 전문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經濟學, 經營學, 商學, 法律學에 기초를 두고, 國際經濟, 國民經濟, 個別經濟의 넓은 범위에 걸쳐 이론과 실무를 종합한 무역연구가 요구된다. 현대의 무역연구는 國際貿易理論, 貿易政策論, 貿易經營論 國際貿易實務論 등으로 나누어서 행해지고 있다.

첫번째의 경제학적 연구는 國家와 國家 사이에 행하여지는 物資交易의 근본원리, 특히 한 國際間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유통관계의 動因이나 그것이 각각 國民經濟에 미치는 이해 및 영향을 연구하는 國際貿易理論이다. 마라서 무역의 전문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經濟學, 經營學, 商學, 法律學에 기초를 두고, 國際經濟, 國民經濟, 個別經濟의 넓은 범위에 걸쳐 이론과 실무를 종합한 무역연구가 요구된다. 현대의 무역연구는 國際貿易理論, 貿易政策論, 貿易經營論 國際貿易實務論 등으로 나누어서 행해지고 있다.

職業女性과 非職業女性의 意識調査報告
女性의 結婚滿足度

<師範大 家政科·助敎>

朴 鎭 淑

○…… 요즘 女性들은 過去 傳統的으로 답습되어온 家……○
○……庭的 役割은 그대로 맡으면서 부차적으로 社會的……○
○……役割까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職業治……○
○……動女性들은 2중적인 역할로부터 오는 육체적·정……○
○……서적인 딜레머속에서 生活한다. 이에 本論文에서는……○
○……李貞德 (師範大) 敎授와 朱貞一 (淑大家政大學長) 敎……○
○……授의 指導로 家族關係面, 현재의 結婚生活面, 家庭……○
○……에서의 夫婦間의 역할분담면 등을 중심으로 結婚生……○
○……活을 分析해보려 한다. <本文중에서>

職業女性의 結婚滿足度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부엌인가를 알아내고,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요인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學力을 보면 직업여성은 대졸이상이 57.4%이며 고졸이 31.8%순이며 비직업여성은 고졸이 41.9%, 중졸이 33.9% 순이며 대다수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다.

子女數를 보면 직업여성은 2명이 36.4%, 3명이 23.3%, 1명이 15.5%이고 비직업여성은 3명이 39.5%, 4명이상이 37.1%순으로 두고 있는데, 비직업여성중에 많은 수가 가족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생활정도는 職業女性이 중류이상이 94.6%이며, 非職業女性은 중류이상이 78.1%로 직업여성이 직접 수입을 얻을수 있으므로 생활에 구애를 덜 받는것 같다. 宗敎는 직업여성이 종교를 갖지않은 사람은 39.5%로 1위이며 신흥종교는 믿고있지 않다. 非職業女性은 불교가 37.9%로 1위이다.

결혼형태를 보면 직업 여성은 연애결혼이 41.4%로 1위이며, 20대 여성보다 (17.1%) 30대여성이 (20.1%) 더 높다. 非職業女性은 중매결혼이 60.5%로 높은 퍼센트를 나타냈다.

직업여성은 연애결혼이 많은 것은 직장에 진출함으로써 상대를 구하는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보는 것인데 연애결혼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다.

家族形態를 보면 직업여성 직업여성 모두 약80%가 核家族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가족형태가 핵가족으로 移行해가고 있음을 반영하고있다.

또한 결혼전 배우자에게 월평년 집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더니 직업여성은 전적(27.6%) 장래 (21.2%) 건강(20.4%) 경제력(12.7%) 순임으로 非職業女性은 건강(22.8%) 장래성(21.2%) 성격(19.1%) 경제력(18.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데답에는 직업여성 비직업여성 모두가 대화를 통할수 있어야 하며, 성격이 밝아야하고, 경제력, 건강, 자녀문제, 경성생활, 취미, 종교의 차례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표1참조>

李現瑛, 李根厚의 都市家族內의 부부간 교류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외국에서보다는 학자들이 많아져가고 있다고 하였다.

결혼생활을 통한 부부관계는 그들 상호간의 성격적인 차이, 이질적인 배경문제에 많은 대화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

1주일 동안 時間에 쫓겨던 대부분의 직업 남편이나 부인들은 休日의 유지와 夫婦 상호간의 긴장감을 해소하는 休日을 어떻게 보내느냐 라는 물음에는 夫婦함께 집에서보내는 비율이 높았으며 (직업여성 53.5%, 비직업여성 57.3%) 그 다음으로 자녀와 부부가 함께 외출한다 (직업여성 26.4%, 비직업여성 26.6%) 라고 했는데 특히 직업여성 비직업여성 모두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낚시는 남편이 해야할 任務로인식되어 있다는 라고 했으며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두텃하다고 했다. 도시의 경우를 보면 主人이 48.3%, 主婦가 37.2%, 기타 14.5%로 나타났는데 본論文에서는 부부분등 해결해야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직업여성 80.6%, 비직업여성 87.1%) 나타내고 있어서 그의연구와는 일치하지 않고있다.

경제관리면을 보면 직업여성은 부인이 처리하는 비율이 49.6%로 높은데 비하여 非職業女性은 50%로 부부공동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높다.

이태영은 그의 연구에서 生活費支出은 빈부를 막론하고 부인과 관계있는 것이 결혼의 成功인데 처리하는 것이 결혼의 成功이 처리하는 것이 결혼의 成功이라고 하였지만 夫婦共同으로 처리하는 것도 核家族形態에서는 모두 남편격하는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등하고 성격이 맞아야 한다. 경제력, 건강, 자녀문제를 중요시한다고 했다.

⑤현결혼생활에 대한 대도에서 직업여성이 현격한 차이는 아니지만 현재의 결혼생활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결혼이 행복했던 사람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

⑥대화의 내용 중 대부분이 자녀문제와 미래의 계획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夫婦들의 식구 조가 보수적인데 家形態는 核家族形態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여가시간에 夫婦들이 많은 대화를 나눈다고하였는데 부부중심 家庭에서 바람직한 직한 일에다 생각된다. 그리고 휴자녀와 함께 외출하거나 한다.

⑦家庭에 있어서의 부부간의 역할 분담을 보면 직업여성 비직업여성 모두 子女문제에 있어서 夫婦共同이 해결한다 라고했으며 家庭經濟支出에 있어서 직업여성은 婦人이 처리하며 비직업여성에있어서는 夫婦共同이 처리한다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家事問題는 모두 미루어 男便의 이해와 도움을 받고 있으며 夫婦中心의 家庭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아니가 싶다.

⑧부부관계는 모두가약 90%이상이 만족하고 있다.

결혼적응도로 우리나라 主婦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직업여성들이 비직업여성들보다 자기의 생활을 가질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하며 주부가 직장을가진다고 결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1975년 UN에서 세계여성의 해로 채정된 이래 우리나라 세계여성 직업여성 비직업여성 모두 대화의 내용이 비슷하다.

그리고 夫婦中心의 가족형태에서 애정문제에 대한 대화가 적은 것은 형태만 핵가족으로 바뀌었을뿐 意識構造는 아직도 보수적임을 알수있다.

<표2>에 그 내용을 보면 職業女性은 30대에 자녀문제, 경제문제, 미래의 계획 순으로 주로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비직업여성은 자녀문제, 미래의 계획, 경제 순으로 대화를 나누며 전체적으로 직업여성이나 비직업여성 모두 대화의 내용이 비슷하다.

<표1> 실제 결혼생활에서 중요한것

		20대	30대	40대	50대	계
자녀	직	6.4	20.3	9.9	0.6	37.2
	비직		23.7	20.7		44.4
경제	직	1.2	15.1	3.5		19.8
	비직	1.8	12.4	7.1	2.4	23.7
생활	직	2.9	5.8	2.9		11.6
	비직	1.2	4.2	1.8	1.2	8.3
미래	직	8.7	9.9	1.7		20.3
	비직		17.2	3.0	1.2	21.3
여가	직	1.2	3.5	0.6		5.2
	비직		0.6	0.6		1.2
시사	직	1.2	1.7	0.6		3.5
	비직		1.2			1.2
애정	직	0.6	1.7			2.3
	비직					
계	직	22.2	56.4	20.9	0.6	100.0
	비직	3.0	59.2	33.1	4.7	100.0

<표2> 남편과의 대화내용은 주로 어떤것인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자녀	직	6.4	20.3	9.9	0.6	37.2
	비직		23.7	20.7		44.4
경제	직	1.2	15.1	3.5		19.8
	비직	1.8	12.4	7.1	2.4	23.7
생활	직	2.9	5.8	2.9		11.6
	비직	1.2	4.2	1.8	1.2	8.3
미래	직	8.7	9.9	1.7		20.3
	비직		17.2	3.0	1.2	21.3
여가	직	1.2	3.5	0.6		5.2
	비직		0.6	0.6		1.2
시사	직	1.2	1.7	0.6		3.5
	비직		1.2			1.2
애정	직	0.6	1.7			2.3
	비직					
계	직	22.2	56.4	20.9	0.6	100.0
	비직	3.0	59.2	33.1	4.7	100.0

對話, 性格, 經濟力 重視
核家族 形態—意識은 保守的
大部分 主婦들 自己生活 원해
—85%이상이 父婦關係에 만족

經濟學 概論

東國大교수 經濟學博士 朱 宗 桓 著

最新의 經濟學理論들이 알기 쉽게 體系化되어 있어 近代經濟學의 各分野에 걸친 수준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서술이 평이해 初學者나 각종 시험 應試者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强點을 가지고 있다.

<東亞日報> (77. 8. 8)

完全競爭을 전제로한 新古典派의 一般均衡理論의 문제점을 상세히 부각시키고 있다.

<韓國日報> (77. 7. 29)

古今의 經濟學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평가한 力著이다. 經濟學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하나하나 批判的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經濟學의 윤곽을 槪括的으로 알아보고 싶은 讀者에게는 물론, 각종 採用試驗에 參考書로서 適合하다.

<日曜新聞> (77. 8. 28)

—其他「週刊朝鮮」「每日經濟新聞」「政經硏究」「新東亞」등의 新刊評에서 절찬!

全國有名書店서 發賣中

一潮閣發行

<新菊版, 1,270面, 값5,500원>

第3回 會長盃테니스大會 개최공고

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親善을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第3回 同窓會長盃쟁탈테니스大會를 開催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아 래

日 時: 1977년10월30일(日)오전 9時
場 所: 母校敎職員테니스코트 (G건물앞)
참가범위: 東國테니스회會員 및 卒業生
(大學院·行政大學院·經營大學院포함)
母校교직원
※各지역·職場·學科·써클별, 기타 各期別참가환영
참가비: 각조 3,000원(복식 2인)
主 催: 東國大學校
테니스會
후 원: 東國大學校·東大新聞社
東大교직원테니스회

東國大學校 同窓會長 崔載九
東國테니스회장 宋基成

안경은 시력검사따라

광신안경

▲고급시계 ▲백내장용 ▲가벼운렌즈

<위치>신예용안과 1층 (3·1빌딩 광교 중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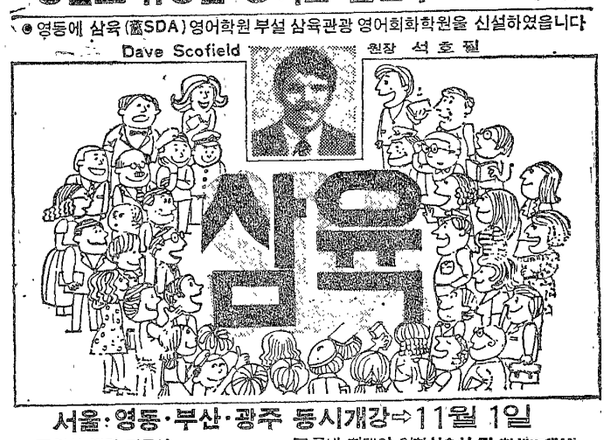
會計士 試驗 特講

◎本試驗班 會計學 1, 2, 3, 4部, 經濟原論
◎基本班=부기 1, 2, 3급, 공업부기.
◎稅務士班=全科目 合格指導 稅法解說
위치: 종로3가 네거리 ☎5002.5003
개강11月1日
창립 30주년 대한경리학원

▲유학 ▲이민 ▲고급비서
배우기 쉽고, 待遇가 후한
관인 신세계 속기학원
☎ ㉒3330 전달 노영민교수
(위치) 시경뒤 해남빌딩 (다방) 열골목10m
(통신강좌) 서울시 중구 북창동111~1
(20원우표 5매동봉)
(버스노선) 시경뒤·시청앞·남대문시장앞

제226호 개강: 11月 1日
독일어
◎총·중·고급 문법반 ◎독문해석연구
◎초급독본, 소설반 ◎시사독어반 (DIEZEIT紙) ◎과학독일어 ◎회화반 (독일인 직강)
◎초급작문·중급작문
본학원에서는 독일어만 강의합니다
독문화학원 ㉗3569
관코리아—사이골목—을지로2가네거리 (덕성철물골목안 은전다방4층)

당신도 유창한 영어를 말할수 있읍니다
◎영등에 삼육(舊SDA)영어학원 부설 삼육관광 영어회화학원을 신설하였읍니다
Dave Scofield 원장 석호필



서울·영등·부산·광주 동시개강⇨11월 1일
□강사 전원 미국인
□완전한 미국식 학습분위기
□엄격한 정원제 실시(한반16명)
□종일 연속 강의
□과외활동 매주 8시간 이상
□국내 최대의 어학실습실 및 학생휴게실
□충분한 교재 사용
□어학교수 특수훈련을 받는 최신교수법
□봉사정신으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교사
□냉·난방시설 완비

삼육 SDA 영어회화학원
삼육 SDA 영어회화학원

진지한 自己探究 돼야

제4회 東大 美展을 보고

內容다양…實力向上 여실

80號이상 大作, 意慾 보여

製作施設 미비로 材料單純

美術科의 第4回 東大美展이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G건물 2층 특설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美展의 특징은 우선 出品作 모두가 60호이상의 크기라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80내지 1백호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大作을 제작하려면 그만한 實力배양없인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상당히 고무적인일이다. 조소부분도 대부분 소身像의 大作이다.

두번째 특징은 展示空間이 넓다는 점이다. 學年初부터 작품 제작에 들어가 열려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는 데도 入選作이 예년보다 훨씬 늘어 總3백4점(西洋畵 1백7點, 東洋畵356點, 조소 56點, 佛敎古美術4점, 소묘1756點, 디자인9점, 구성16점)에 이른다.

그래서 예년처럼 G건물 2층 전부(佛大學長室 등 상설 부속실 제외)를 展示場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전시실 하나하나를 가름해 벽면을 이용하고 있다.

세번째 특징은 작품內容 중 『西洋畵의 조미혜(4) 장필순(4) 장필수(4) 등 部門은 거의다 흉이나서 있는 시설이 하루 속히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群鶴一鶴적 이는 『가벼운 作品』이 문法上의 문제도 있지만, 그 실히 『自己探究』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이 하루 속히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美術科의 學生들이 自己探究』에 힘쓰고 있는 것은 이번 美展을 통해서 미술의 虛와 實이 여실히 나타났다. 우수한 학생들을 그룹으로 해서 『美術東國』의 새 전통에 기대를 모아야 될 것이다.

〈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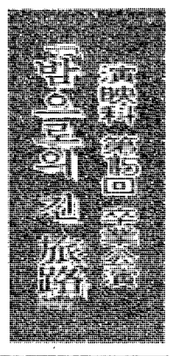
東大美展이라고 하면 해마다 열리는 관례적인 行事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本校에 美術學科가 생긴지 벌써 7年이 되어 이젠 그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볼때 그 의의는 결코 작게 평가해서는 안된다. 결코 안일의 상태에서 기대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치열한 內的 갈등과 外的인 제 상황과의 관련는 대결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극복한 만큼의 결과로서 作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美展은 아무튼 조소부분도 재료의 필법정도 지적이된다. 展示作品 대부분이 흉을 재료로한 女子의 소묘像이다. 佛敎古美術은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사전준비와 계획이부족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졸업예정자뿐만이 아니라 全學年 學生들의 작품 제작 태도는 前보다 몇배 나아져 있음이 확연하다. 이것은 藝術的 創造에의 집념이성 실히 고조되고 있다는증거이다.

끝으로 創意的이고 아카데믹한 구상력의 배양에 소홀함은 경주해야 될것 같다. 가능하다면 專攻別 實技 장학금제도 같은 것이 있다면 學生들의 創意力에 훨씬 보탬이 될 것임을 밝히고 싶다.

〈佛敎大·美術科〉 章鉉秀

創作에의 熱念고조



演映科 佛敎古美術 合同 『밤의 흐름』 전 旅臨

演映科 제15회 卒業公演이 오는 1日부터 10日까지 演映科小劇場 오후 6시와 12일부터 14일까지 (國立劇場 소극장, 오후 3시, 6시) 2차례에 걸쳐 공연된다.

하면서 노련한 演出과 성숙한 演技를 보여주고 있는 演映科의 이번 公演作品은 유진오 原作 『밤의 흐름』로 연출에 심혈을 기울여 『리얼리즘』의 극한을 보였다고 한다.

人間內面의 問題다뤄

"리얼리즘 추구할터"

(4) 군이며, 채수영, 박갑순, 신상윤, 이종온, 김혜순 등 각 有名劇團에 있는 俊才들이 출연한다.

『밤의 흐름』은 이태준 원작의 4식구가 각자 잘못을 일으키며 항상 공전하는 생활을 이루다가 결국 파탄되고 만다는 내용이다.

『현실을 만한 결요』

『찰을 만한 결요』

먼저 가라고 말하려다가 차마 그렇게는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앉서가주

文學 傳統

劇團「에저또」

28日부터 『찰새와…』

극단 「에저또」는 尹朝炳作 石塔연출의 『찰새와 기관차』를 28일부터 11월2일까지 하오 4시, 7시 연극희관 제실극장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은 허수아비에도 놀라 달아나는 겁쟁이 참새가 부엉게 달려드는 우차를 향해 달려드는 용기를 그린 것이다. 그리고 그 작품은 한 작품이 의도하는 것은, 그 사건을 작품으로 再構成함으로써, 보지 않고 지나쳤던 어떤 새로운 면을 부각시킨다거나, 혹은 그사건을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 비판함으로써 그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내려는 것이다. 할때 우선, 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첫째와 둘째 토막에 있어서는 첫째 토막의 뒷부분에 약간의 사건에 대한 감정이 보일뿐이다.

그럼데 그것은 비판이나 검토라기 보다는 단순한 감상(感想) 혹은 感傷의 形態로 나타나었다.

사건 자체보다는 거기에 대한 국외자(局外者)의 반응을 그리고있는 세째 토막에서 모든 감정이 배제된 이성(理性) 만으로의 관찰이 나타나 있는 것은 그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건을 작품으로 再構成함으로써 보지 않고 지나쳤던 어떤 새로운 면을 부각시킨다거나